



14면

청송포럼, 26년 연대 위에 새로운 도약 선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음 12월 1일) 제389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순항중

월드컵경기장 일원서 추진
야구장·육상경기장 65%
실내체육관은 40% 공정률
우 시장, 현장 점검 나서



지난 16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야구장 건립사업을 비롯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순항하면서 전주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야구장 건립 사업을 비롯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현황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은 기존 축구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이 들어서는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현재 총사업비 1,421억원이 투입되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립사업은 6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652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역시 40% 공정률을 보이며 점차 윤곽이 갖춰지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날 우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차질 없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따라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에 공공체육시설을 집적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선 8기 들어 총사업비 2,078억원 중 1,608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 현재의 외관을 갖추게 됐다.

그 결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부지는 어느덧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 중 야구장의 경우 센터라인 121m에 좌우 98m, 8.176석 규모로 지어지며, 육상경기장은 육상연맹 공인 1급 시설로 각종 대회 개최 문제가 없도록 건립된다.

야구장 건립 규모는 건립 구성 초기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프로야구단이 없는 현실과 실제 이

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 등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관람석 증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실내체육관 옆에 들어서게 될 호남권 전주스포츠가치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관련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기초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순차적으로 건설 예정인 국제수영장도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 복합스포츠타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향후 이들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복합스포츠타운이 전주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전북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붉은 말의 해인 올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처럼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2027년에는 명실상부 복합스포츠타운의 위용을 갖춰 각종 국내의 스포츠대회 유치는 물론, 시민 체육 여가생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전주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초자치체 중 이러한 규모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사례가 없고 전주시의 높은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한 것이 후보도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희성 기자

“전북, 국제에너지 도시로”

민주 이원택 의원, “제도적 뒷받침 통해 관련기관 유치”
새민금 글로벌 메가특구 조성 등 핵심전략 4대 축 제시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국특 시대를 선두에서 열어가기 위해 전북을 미래 패권을 미래 패권으로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에 대한위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해 JIST(전북과학기술원), 한국 피지컬 AI 연구원, 에너지 대학원 등 교육·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기초연구,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5국특 전략이 5개 메가시티 (5국)중심으로 치우쳐져 전북을 존립의 위기까지 몰아넣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향후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에너지 도시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국내에서 국제 에너지 도시로 발전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료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유치키로 했다.

또 전북을 바깥 핵심 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민금 글로벌 메가특구 조성 과 과학 기술 산업전략, 인프라, 행정체계 재구축 등 4대 축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의 성장을 견인할 6대 산업 거점으로 △20GW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 RE100 전용 산업과 반도체 및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 AI 산업 선점 △아시아 식품 수도 및 글로벌 식품 허브 구축 △K-컬처 거점 조성 △AI 결합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북의 역사·문화·생태관광을 활용한 체류형 융복합 관광으로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민금 부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으로 5국 중심의 10조원 규모 초광역 특별계정에 대응 전북을 포함한 3국(전북, 강원, 제주)을 위한 6조원 규모의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도내 특성에 맞는 규제 유예와 세제 혜택을 전북이 직접 설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소신도 밝힌 가운데 “광역시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주·원주 통합이 절실하다”며 국회의원 원탁회의를 통한 초당적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제·군산·부안 3개 시군이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 의회와 행정을 갖추는 ‘새민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체’ 구축을 통해 새민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지방수도 균형발전의 비전을 전북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당 대표와 함께 강력한 삼각편대를 구축해 전북을 지역균형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희성 기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법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경호처 사병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법질서 기능 저해... 죄질 매우 안좋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뉴스스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